

※ 신안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19장	다	같이
기도	1부/김수길	시무집사	
	2부/이연호	장로	
성경봉독	고전 11:2-16 (p.신약 276)	인도자	
광고및교제	새가족환영	다	같이
설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홍순용	목사
찬송	620장	다	같이
헌금봉헌	축복기도	인도자	
축도		홍순용	목사

◎ 다음 주 설교/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자" (고전11:17-34)

◎ 다음 주 기도/ 1부 윤대원 시무집사, 2부 김영광 장로

주일 오후 찬양예배

- 코로나19 로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수요 밤 예배

저녁 7:00

인도: 홍순용 목사

목도 ----- 다 같이
찬송 ----- 176 장 ----- 다 같이
기도 ----- 구회순 시무권사
성경봉독 ----- 막 12:18-27 (p.신약76) ----- 인도자
설교 ----- 산자의 하나님 ----- 홍순용 목사
찬송 ----- 171 장 ----- 다 같이
기도 ----- 인도자
주기도문 ----- 다 같이

*다음 주 기도: 배삼례 시무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00 인도: 홍순용 목사

말씀: 잠언 강해

금요 밤 예배

- 코로나19 로

당분간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 / 봉사위원

4월	안내 및 헌금 위원	교회 정문	1층 현관	본당 입구		예배실
		조주봉 집사 이옥주 집사	김성민 시무집사 문경옥 시무권사	황호준 시무집사 배삼례 시무권사	김영희 시무권사 정혜진 시무권사	
		계수	봉헌			
		최현철 / 김수길	1부 김성민 시무집사	2부 박승용 시무집사		

향기로운 예물

십일조	김순호(박옥란) 김주신(김수연) 양해표(원은신) 윤대원(문선영) 장세훈(김은영) 홍순용(조세경) 김길자 김태옥 박현선 신순혜 이은희 이훈 장은희 한옥숙 허춘해 홍옥숙 황예진 황호준
감사헌금	김영만(김기옥) 박상귀(변형남) 김길자 김행자 이은희 장세훈 홍순용 무명
선교헌금	홍순용(조세경) 강정화 김길자 김성민 김수남 김진숙 김태옥 김행자 김홍길 박상귀 박옥란 변형남 신순혜 원은신 이옥자 이은희 이훈 장경호 장세훈 장은희 전미라 허춘해 홍옥숙 황호준
건축헌금	홍순용(조세경) 김길자 김순호 김진숙 김태옥 이옥자 이은희 이훈 장세훈 허춘해
장학헌금	최수복
증식헌금	김홍길(유경연) 오성만(김성숙)

※교회 헌금 온라인 번호: 농협 100051-51-074600 (예금주: 동산교회)

※헌금자 명단에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번주 증식헌금

- ① 김홍길 은퇴장로(유경연 은퇴권사)님 가정 - (결혼기념 감사)
- ② 김성민 시무집사(전미라 집사)님 가정 - (범사에 감사)

[2021-22년 성경읽기]

7독: 이병희 장로 (1독)	8독: 박영희 권사 (1독)	9독: 정옥희 권사 (1독)
10독: 김귀숙 권사 (1독)	11독: 김경숙 권사 (1독)	12독: 이순자A 권사 (1독)
13-17독: 김길자 권사 (8독)	18독: 이병희 장로 (2독)	19독: 이옥주 집사 (3독)
20독: 박상철 장로 (1독)	21독: 김귀숙 권사 (2독)	22독: 김순호 장로 (1독)
23-24독: 노정미 집사 (2독)	25-28독: 김길자 권사 (12독)	29독: 장정국 장로 (2독)
30독: 이병희 장로 (3독)	31독: 원은신 집사 (1독)	32독: 김홍길 장로 (1독)

주/간/말/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자
(본문: 고전 11:17-34)

이전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대교회가 예배 때에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며 남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려야 한다.

[문단 나누기]

1. 바울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주의 만찬을 바르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꾸짖다(17-22).
2.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것처럼 떡은 예수님의 [] 이요,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임을 알려주며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임을 알려주다(23-26).
3. 합당하게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기에 자신을 살피고 주의 떡과 잔을 먹어 정죄함을 받지 말아야 한다(27-32).
4.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고,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모임이 판단받지 않도록 하라(33-34).

[중심사상]

우리는 주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것임을 알아 합당하게 참여하고, 자신을 살피 범죄치 않고, 서로 배려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알게 된 사실]

- 1) 파당을 지어 분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 2) 당시 잘못된 성찬은 식사와 함께 하여 많이 먹는 자가 있었고 적게 먹는 자가 있었다.
- 3) 고린도에 전한 성찬의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의식이다.
- 4) 떡은 예수님의 몸을,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임을 기념하라고 한다.
- 5) 성찬식을 통해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한다.
- 6) 자신을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 7) 모임 때 서로 기다려 같이 먹어야 한다.
- 8)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모임이 판단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적용하고 기도하기]